

Q1.

안녕하세요, 현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직을 맡는 이순영님과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국내 사육곰 및 사육되는 야생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순영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동물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동물 트레이닝이라면 오직 사람들의 편의나 즐거움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동물의 삶의 질 또한 트레이닝을 통해 높아질 수 있어요. 항상 그쪽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 관심이 갔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으로만 알고 지내던 최태규 수의사님의 활동을 보았고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되어 만나러 간 자리가 곰 보금자리 회의 끝나고 회식 자리더라고요. 그때 활동가분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저도 평소 사육되는 야생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흔쾌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에 뜻이 맞아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Q3.

사육되는 야생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국내의 야생동물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육되는 야생동물이라면 대부분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기 보다는 평생 사람과 함께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육 공간에서 동물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내의 야생동물 복지의 경우, 실내동물원만 봐도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은 더 나빠지고 대중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해야 할 동물원이 동물을 흥미위주로만 전시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Q4.

네, 국내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가까이에서 접하니까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순영님은 얼마전에 **3개월간 해외 생츠퍼리 파견**을 다녀오셨잖아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SNS**계정으로 생츠퍼리 소식을 실시간 공유해주셔서 무척 좋았어요. 국내 사육곰, 사육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과 비교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생츠퍼리 파견이 순영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당시에는 나중에 한국에도 곰 생츠퍼리가 생기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쫓아다니고 기록하는 생활을 했어요. 아직은 생츠퍼리가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사육곰을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육되는 다른 동물을 돕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츠퍼리에서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한국에도 생츠퍼리가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고 지지해 주었어요. 꼭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빨리 생츠퍼리가 건립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Q5.

SNS에 공유해주신 생츠퍼리 소식에서 곰들이 생츠퍼리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트레이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서 동물 트레이닝 관련 정보를 전해주시는 순영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견 경험 이후에 활동가로서 순영님께서 지향하는 활동 방향은 무엇인가요?

활동가를 하면서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노력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위해 하는 일이기 전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잘 버티고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사육곰을 비롯한 동물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육곰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뤄졌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해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육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